

ISO / TC51 총회 결과 보고

Result on General meeting of ISO/TC51

파렛트의 국제표준화 진작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ISO / TC51 총회가 지난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타워호텔에서 개최됐다.

플라스틱 파렛트 시험방법 국제표준(안) 채택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총회가 국내에서 열려 큰 관심을 모았다. 한국을 비롯,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11개국 22명의 파렛트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파렛트 시험방법, 파렛트 성능기준, 최대 적재하중 등의 국제기준에 대한 협의와 파렛트 관련 국제용어 정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ISO 8611-1(시험방법)은 개정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의했고 ISO / TS 8611-2(파렛트 성능기준), ISO / TS 8611-3(최대 적재하중)은 동시에 Technical Specification으로 확정하면서 DIS로 전환작업할 계획이며 ISO 8611-1, 2, 3의 개정 및 전환작업을 위해서는 다음의 해결하지 못한 내용을 'Conversion Project' 로 추진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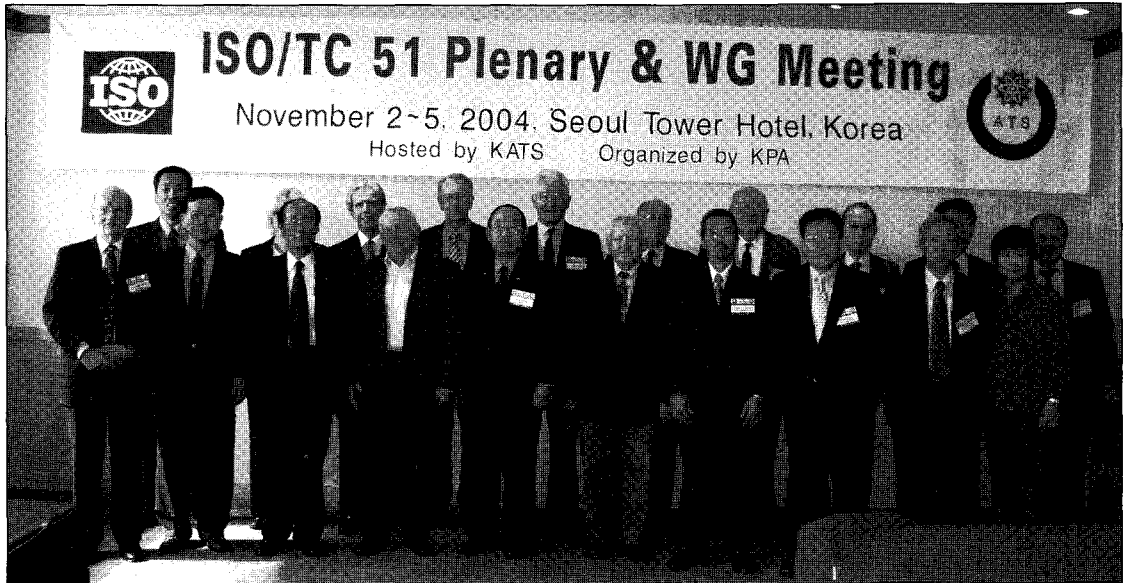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2006년 6월까지 시험결과를 내기로 하고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참여하여 아래의 사항을 해결하기로 결의했다. 시험 3(에어백시험)의 경우 시험 1과 3번과의 연관관계를 찾고, 시험 3의

시험방법을 개선하여 각국의 시험환경과 관계 없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시험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시험 8(하판시험)은 현재 성능기준이 없는데 Stacking의 상하판 시험과 Conveyor의 하판시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시험 4a, b는 기존의 Block형의 Load Applicator를 Bar 혹은 Air Bag으로 대체할 때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파렛트의 모든 재질을 이용하여 시험 1, 2, 3, 4, 8을 할 때 Creep 시험결과를 기존의 라스틱인 경우 24시간 혹은 48시간을 하지 않고 짧게 할 수 있도록 시험결과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ISO 445(용어정의)의 개정작업을 시작하여 새로운 재질과 형태를 가진 파렛트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용어도 수정 보완했으며 특히 플라스틱에 관한 그림을 추가 삽입하고 ISO 445를 DIS로 등록하기 위해 수정한 초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ISO / TR 12776(Slip Sheet)을 1년내로 DIS로 등록하기 위해 W/G 4의 장(Dr. White)이 초안을 마련한 것은 물론 W/G 2, 4, 6에서 논의한 상기의 내용을 각국 대표위원들에게 동의를 받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ISO TC51 워킹그룹의 존 미드(John Mead) 위원장은 "파렛트 표준화를 통해 각국



▲ ISO / TC51 총회에 참석한 각국의 파렛트 전문가들

에서는 더욱 효율적으로 물건을 운반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물류합리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T-11형 파렛트 확산 보급이 활발한 것에 놀라움과 기쁨을 표시한 존 미드 위원장은 "각국의 파렛트 규격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렛트 표준사이즈를 줄이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파렛트 저온 낙하 시험방법과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유럽에서 주장하고 있는 -10℃에서의 저온시험은 파렛트를 떨어뜨렸을 경우 파렛트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의미가 있으나, 한국·일본·중국 등 플라스틱 파렛트를 수출용이 아닌 국내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적재화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10℃ 이하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국내 파렛트 업계가 저온시험에 필요한 고가의 냉

동고(Chamber)에 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돼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버지니아 주립대 '유니트로드 디자인센터'의 마샬 화이트(Marshall S. White) 박사는 "파렛트를 생산하는 업체가 고민할 내용이 아닌 거 같다"며 "시험장비를 가진 시험소의 문제이며 당연히 갖춰야할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한국의 파렛트 산업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참가했던 ISO/TC51 관계자들은 "파렛트는 물류에서 근본적인 요소이며 국제무역의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파렛트 표준화를 통해 국제무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006년 총회는 프랑스 파리에서 11월경에 개최할 예정이다. □

이한얼 기자